1. (가), (나)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① (가) – 생산물의 사유화가 일반화되었다.
② (가) –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③ (나) –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④ (나) – 반달 돌칼을 이용한 곡물 수확이 이루어졌다.
⑤ (가), (나) – 금속제 무기를 사용한 정복 활동이 활발하였다.

정답: ④

*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사회상

(가) **빗살무늬토기(신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이들 씨족은 점차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족 사회도 구석기 시대의 무리 사회와 같이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였다.

(나) **미송리식토기(청동기)**: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계급 사회의 발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이다. 거대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청동으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사유화).
그리하여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어 가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이런 지배자를 족장(군장)이라고 한다. 족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미송리식토기 관련).

③ 신석기 시대에 처음 농경이 시작되자 정착생활을 하며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④ 청동기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괭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2. (가)가 중심이 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진흥왕 37년, 외모가 고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게 하고 이름을 [(가)](이)라 하여 받들게 하니, 따르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도의(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노닐고 즐기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삼국사기」-

① 무예를 닦아 신라의 삼국 통일에 기여하였다.
②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③ 매향 활동을 하면서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④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⑤ 삼강오륜 중심의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풍속을 교정하였다.

정답: ①

* 신라의 화랑도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이 조직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을 지도자로 삼고,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 망라한 많은 낭도가 그를 따랐다.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신라 청소년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무예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화랑도는 진흥왕 때 국가 차원에서 그 활동을 장려하여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원광은 청소년에게 세속 5 계를 가르쳐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어진 재상과 충신이 여기서 배출되었고, 훌륭한 장군과 용감한 병사들이 이 곳에서 생겨났다."라고 썼고, 중국의 기록에서는 "귀족의 자제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가려 뽑아 곱게 단장시켜 화랑이라 하였다. 당시의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섬겼다."라고 하였다. 화랑도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② 고구려의 제가 회의, 백제의 정사암 회의, 신라의 화백 회의가 대표적인 귀족 회의체이다.

③ 고려의 농민 공동 조직인 향도는 매향(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활동)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④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 제도는 만장일치제로 귀족의 단결을 굳게 하고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⑤ 조선 중기에 등장한 향약은 전통적 공동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되었다.

3.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이사부는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 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놓아 밟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①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②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③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④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⑤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정답: ③

* 신라 발전의 초석을 놓은 지증왕(500~514)

• 제시 자료는 지증왕 대에 이사부를 통한 우산국 정벌 기사이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① 신라는 4세기 내물왕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② 신라 법흥왕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불교를 공인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④ 신라 진흥왕은 정복 군주로서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⑤ 신라는 5세기 초에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 나려 하였다(눌지왕),

4.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 검모잠이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보장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그들을 토벌하니,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 • 소형 다식 등이 아뢰기를, "우리 선왕이 도를 잃어 나라가 망하였지만, 지금 우리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라건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문무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가)에 머물게 하였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정답: ⑤

* 고구려 부흥 운동과 보덕국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검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한편 당은 당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 내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먼저,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찾기 위해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하여 당 침략군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의 왕족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라군은 당군이 주둔하고 있던 사비성을 함락하여 웅진도독부를 없애고, 백제의 옛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 후. 당군은 말갈군과 거란군을 앞세워 계속 침범하였으나, 신라는 장기간의 끈질긴 항쟁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신라군은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쳐 군마 3만 마리와 많은 무기를 빼앗았으며.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였다. 이렇게 당 침략군을 계속 물리친 신라는 드디어 대동강 이남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 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A: 오골성(고연무의 고구려 부흥운동)
B: 한성(재령, 검모장의 고구려 부흥운동)
C: 매소성(나당전쟁의 격전지)
D: 임존성(백제 부흥운동 지역)
E: 금마저(익산, 보덕국)

5. 밑줄 그은 '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김흠돌 모역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귀족이 숙청되었다.
ㄴ.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이 성장하였다.
ㄷ.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염원에서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ㄹ. 6두품이 중심이 되어 골품제를 비판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신라 말 진성여왕 대의 혼란기(887~897)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원종.애노의 난: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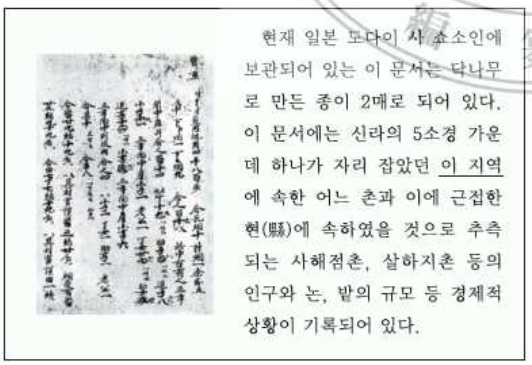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또는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 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선종 승려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 7세기 말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며 왕권을 전제화하였다(681)

㉡ 8세기 중엽 김대성은 불국토 건설의 염원으로 불국사 건립을 시작하였다(751)

6. 밑줄 그은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삼국 시대 – 철기 문화가 발달한 금관가야가 있었다.
② 신라 말기 – 양길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③ 고려 말기 –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④ 조선 전기 – 조운을 담당하는 가흥창이 설치되었다.
⑤ 조선 후기 – 한글 소설인 춘향전의 무대가 되었다.

정답: ③

* 청주의 역사

• 제시 자료는 통일 신라기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충북 청주) 인근 지역 촌락에 대한 신라 민정문서이다.

① 철기 문화가 발달한 금관가야가 있었던 곳은 낙동강 하구의 경남 김해 지역이다. 통일신라기 5소경 중 금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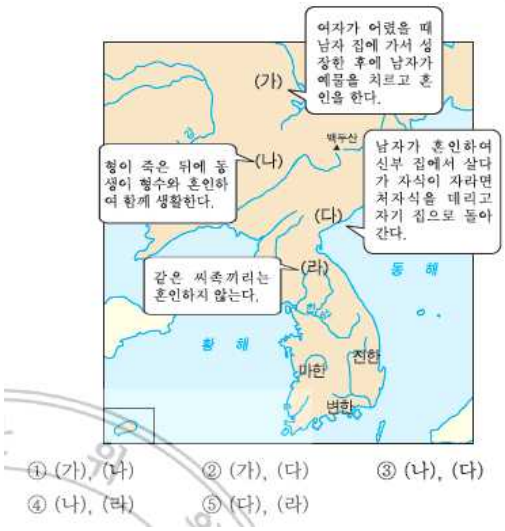
② 양길은 신라 말 초적(草賊)을 이끌고 북원경(원주)에서 봉기 세력을 이끌었고 강원도 일대에 세력을 떨쳤으나 부하인 궁예에게 습격당해 패하고 휘하세력이 궁예에게 흡수되었다.

③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1377)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④ 가흥창은 충북 충주(통일신라기 중원경)에 설치된 조선시대의 조창(漕倉)이다.

⑤ 한글소설인 춘향전의 무대는 전북 남원(통일신라기 남원경)이다.

7. 지도에서 혼인 풍속이 옳게 설명된 초기 국가들을 고른 것은? [2점]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④

* 초기 국가들의 혼인 풍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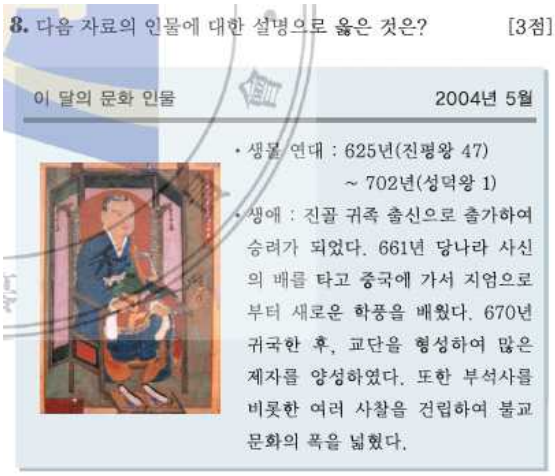
(가) **부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 제도인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가 있었다.

(나) **고구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함께 서옥제가 있었다. 서옥제(婿屋制)란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예서제).

(다) **옥저**: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예부제)가 있었다.

(라) **동예**: 신석기 시대의 유습인 족외혼(族外婚: 배우자를 다른 씨족에게서 구함)을 엄격하게 지켰다.

8.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② 교관겸수를 제창하여 교종과 선종의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십문화쟁론을 지어 여러 종파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④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시켰다.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정답: ①

* 통일신라기 화엄종을 창시한 의상

의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특히 화엄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서술한 그림시인 화엄일승법계도 (華嚴一乘法系圖)가 유명하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의상은 미래의 극락행을 추구하는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는 달리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② 고려 전기의 의천은 교.선 통합을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③ 통일신라기 원효(617~686)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 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불교의 백가(百家)의 이론(異論)을 모아 10문(十門)으로 분류하고 난구(難句) ·이설(異說)을 모아 정리하여 1대승(一大乘)을 지향하는 총화(總和)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책인 <십문화쟁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④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 지리적 학설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따라,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⑤ 통일신라기에 많은 승려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 그 중에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9. (가), (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나)

① (가) – 전형적인 통일 신라 양식의 석탑이다.
② (가) – 일본의 목탑 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③ (나) –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이다.
④ (나) – 불국사 3층 석탑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
⑤ (가), (나) – 선종이 도입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정답: ⑤

* 신라 말의 불탑

(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전남 화순)
(나)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통일 신라에 들어와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하였다. 통일 신라 초기의 석탑으로 대표적인 것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이다. 불국사에는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3층 석탑(석가탑)과 높은 예술성과 빼어난 건축술을 보여 주는 다보탑이 있다.

신라 말기에는 석탑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의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연곡사 동부도).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② 6세기 이후로 일본으로 건너 간 백제의 공예 기술자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 가람 양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④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8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선종을 도입한 도의(道義)가 당나라로 유학갔다가 821년(헌덕왕 13) 귀국하여 오랫동안 은거하던 곳이다.

10. (가) 국가에서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1점]

> 3월에 왕이 순행을 하다가 낭성에 이르러서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尼文)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의 가실왕이 12줄 현금(玄琴)을 만드니, 그것은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었다. 우륵이 가실왕의 명을 받아 곡을 만들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의하였다.
> -「삼국사기」-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 대가야의 유물

• 제시된 자료에 나오는 가야금의 발명자 우륵은 대가야 출신이다.

① **대가야의 금관**(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② **호우명 그릇**(경주 호우총 출토, 고구려 관련)

③ **발해 정혜공주묘 앞 돌사자상**(길림성 돈화현 육정산 고분)

④ **신라 천마도 장니**(障泥): 경주 천마총 출토

⑤ **백제 칠지도**: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石上神宮) 보관

11. 밑줄 그은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귀하를 뵌 적은 없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래 전에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 법화원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을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
> –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

〈 보 기 〉

ㄱ. 6두품 출신으로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ㄴ. 호국 불교에 바탕을 둔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ㄷ. 신무왕 즉위에 공을 세웠으나 귀족의 견제를 받아 살해당하였다.
ㄹ. 당, 신라, 일본을 잇는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청해진 대사 장보고

•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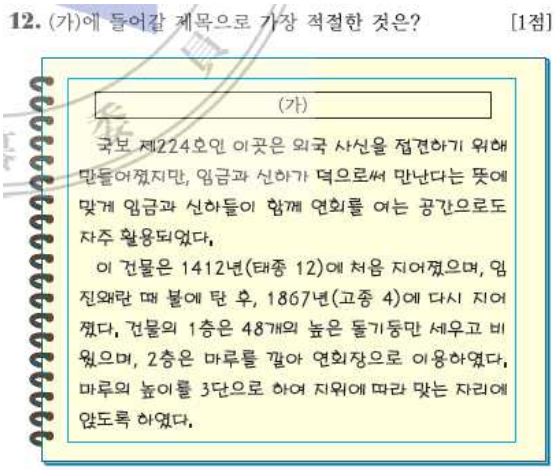
• 장보고는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둥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 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중국을 순례하던 중에 법화원에서 신세를 진 일본의 승려 엔닌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 이 때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엔닌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명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아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서남해안 일대의 커다란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 뒤 왕권다툼에 간여하여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성왕 때에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한 진골 귀족들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였다.

㉠ 6두품 출신으로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대표적 신라인은 최치원, 최승우(견훤의 책사), 최언위(왕건의 책사) 등이 있다.

㉡ 신라 선덕여왕 때에 백제 등 주변국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고자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자장(590~658)이다

12.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가)

국보 제224호인 이곳은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써 만난다는 뜻에 맞게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연회를 여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었다.

이 건물은 1412년(태종 12)에 처음 지어졌으며,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후, 1867년(고종 4)에 다시 지어졌다. 건물의 1층은 48개의 높은 돌기둥만 세우고 비웠으며, 2층은 마루를 깔아 연회장으로 이용하였다.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하여 지위에 따라 맞는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① 왕실 권위의 상징인 근정전
② 명성 황후의 한이 서린 건청궁
③ 연못과 누각이 어우러진 경회루
④ 초계문신의 자취를 간직한 주합루
⑤ 사대부 저택을 본뜬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

정답: ③

* 경복궁 내의 연회 장소 경회루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건물이 있다.

• **근정전**: 정전(正殿). 왕과 신하의 집전실

• **교태전**: 경복궁 중앙에 있음(중전). 왕비의 침전

• **강녕전**: 경복궁 안에 있던 왕의 침전

• **사정전**: 정전인 근정전 뒤에 있는 편전(便殿)으로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던 건물

경회루: 외국 사신의 접대와 연회를 베풀던 곳

② **경복궁 건청궁**: 1873년 고종이 사비를 들여 짓기 시작하여 1884년부터 기거한 곳으로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상징적인 곳이자 신문물이 처음 수용되는 곳이다. 명성황후(민비)가 이곳에서 시해되었다.

② **창덕궁 주합루**: 창덕궁 후원(비원)의 연못가에 있는 건물로 2층에 규장각(奎章閣)이 소재하여 정조의 초계문신제(신진관료 재교육)의 산실이다

③ **창덕궁 연경당**: 연경당(延慶堂)은 순조 28년(1828년)에 창덕궁 후원에 지어진 집으로, 왕궁이 아닌 사대부 상류 주택의 양식을 따라 지어졌다. 총 99칸이다.

13.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처인 부곡에서 그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그 우두머리 살리타를 사살하고, 사로잡은 자도 많았습니다. 이로부터 그 남은 무리들이 기세를 잃고 회군하여 갔습니다.
>
> –「동국이상국집」–

〈 보 기 〉

ㄱ. 고려군이 거란군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이다.
ㄴ. 왕은 이 난리를 당하여 나주까지 피신하였다.
ㄷ. 전투에 승리한 후 이곳은 현으로 승격되었다.
ㄹ. 이곳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몽골의 2차 침입 때의 승전지 처인 부곡

1231년부터 시작된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은 40여 년 동안 6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2차 침입 때엔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이 기간에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처인 부곡(경기 용인)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撒禮塔)의 군대를 물리치는 등 일반 민중의 항쟁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향.소 주민들과 같이 양민이면서도 군현민과 구별되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짐) 지역의 주민까지도 몽골에 대항하여 싸웠다.

㉡ 거란의 2차 침입 때에 개경이 함락당하여 국왕(현종)이 나다.주로 피신하였다(1010)

㉢ 김윤후와 처인부곡민의 승리를 인정받아 처인 부곡에서 처인 현으로 승격되었다.

14. 지도의 빗금 친 영토를 수복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왕권을 제약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ㄴ.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하였다.
ㄷ. 최영으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게 하였다.
ㄹ. 과전법 실시를 포함한 전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고려 공민왕(1351~1374)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공민왕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권문세족을 억누르면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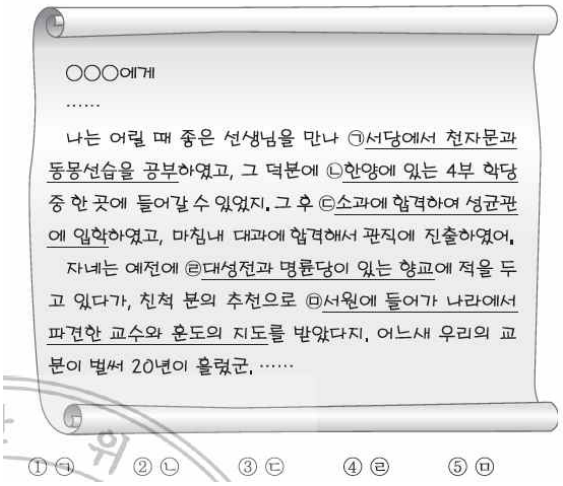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 우왕 때에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으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1388).

㉣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15. 다음 가상 편지 글의 밑줄 그은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⑤

* 조선의 교육 기관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한양)의 4 학(중학, 동학, 남학, 서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 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 세부터 15, 16 세 정도에 이르렀다. 천자문, 유합, 동몽선습, 격몽요결 등을 학습하였다

㉢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소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대성전: 공자 제향)와 유생의 교육(명륜당)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

㉤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16. 다음 신문 기사에 소개된 그림으로 옳은 것은? [2점]

○○ 일보 2009년 9월 ○○일

다시 만나 보는 조선 회화의 걸작

조선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 그림은 1996년 국내에 전시된 지 13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았다. 일본 덴리 대학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 그림의 전시를 위해 외교 통상부까지 나섰다고 한다. 조선 세종 대의 화가였던 안견이 안평 대군의 요청을 받아 그린 이 그림은 안평 대군의 발문과 시문 이외에도 당대 문사 21명의 시와 글씨가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⑤

* 조선 전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15세기 그림은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① **영통동구도**: 18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강세황은 서양화 기법을 반영하여 사물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② **금강전도**, ③ **인왕제색도** :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④ **세한도**: 19세기 서화가 김정희의 문인화. 작가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그림은 수묵과 마른 붓질 및 필획의 감각만으로 그려졌으며, 옆으로 긴 화면에는 집 한 채와 주위에 송백 두 그루씩이 대칭을 이루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여백으로 되었다.

⑤ **몽유도원도**: 안평 대군이 꿈 속에서 본 도원을 안견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그림이다 (일본 덴리 대학 소장).

17. 밑줄 그은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숙주의 연보〉
- 1417년(태종 17) 출생
- 1439년(세종 21) 친시 문과에 합격함.
- 1441년(세종 23) ㉠집현전 부수찬으로 임명됨.
- 1443년(세종 25) ㉡통신사 변효문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옴.
-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시 수양 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에 책봉됨.
- 1468년(예종 1) 남이를 숙청한 공으로 ㉣익대공신에 책봉됨.
- 1471년(성종 2) ㉤영의정으로 임명됨.
- 1475년(성종 6) 사망

① ㉠ –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② ㉡ – 돌아온 후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③ ㉢ – 성삼문, 박팽년 등의 모의를 저지한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
④ ㉣ – 일정 지역을 녹읍으로 하사받았다.
⑤ ㉤ – 비변사에 참여하여 회의를 주관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전기 인물 신숙주 관련

조선 초기 정치적 격동기에 벼슬생활을 하면서 집현전 학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많은 공신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1453, 김종서.황보인 처단)을 일으켰을 때 정난공신, 세조가 즉위한 후 좌익공신(1455), 남이의 옥사를 처리한 후 익대공신(1468), 성종이 즉위한 후 좌리공신(1471)에 오르는 등 정치적 사건의 핵심에 늘 함께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으로 대표되는 정치논리 상황에서 변절자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외교(일본.류큐 외교)와 국방(야인 정벌) 등 두루 능력을 발휘하였다.

㉠ **집현전 부수찬**: 집현전은 학자양성과 학문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부수찬은 종 6품으로 경적(經籍) 및 경연(經筵)·문한(文翰)을 맡았다.

왕명출납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 **해동제국기**: 세종 때(1443)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왕의 명령에 따라 쓴 견문기로서 일본과 류큐(오끼나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1471년(성종 2)에 간행되었다.

㉣ 조선 시대에 공신은 공신전을 지급받는다. 과전과는 달리 사전으로 취급되어 세습 및 면세의 특혜가 있었다.

녹읍은 고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 비변사는 중종 때의 3포 왜란(1510) 이후인 1517년에 임시 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

신숙주는 1460년(세조 4)에 강원.함길 도체찰사로 출전하여 야인(여진)을 소탕하였다.

18. 다음 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세종 때를 전후하여 추진된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의 시책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실용적 학문을 크게 발전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 조선 세종 때의 과학 문화 유산

조선 초 세종 때를 전후한 시기의 과학 기술은 우리 나라 역사상 특기할 정도로 뛰어났다. 당시의 집권층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학 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천)의와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자격루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고,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① 거중기: 조선 후기 정조 대에 정약용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② 화차: 1448(세종 30)년에 만들어진 바퀴가 달린 화차는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 개를 잇따라 발사할 수 있었다.

③ 앙부일구(해시계)

④ 혼천의(천체관측 기구)

⑤ 측우기(강수 측정)

19. 다음 가상 대화가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② 전세 부담을 낮춘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③ 소작료 납부 방식이 도조법으로 바뀌어 갔다.
④ 광작 농업으로 부를 축적한 농민이 늘어났다.
⑤ 쌀의 상품화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정답: ①

* 고려 말의 경제 상황

고려 시대에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밭농사는 2 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1363).

② 조선 후기에 정부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 결당 미곡 4 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③ 조선 후기에는 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방식인 타조법에서, 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내는 방식인 도조법으로 바뀌어 갔다.

④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일부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가는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⑤ 조선 후기에는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20. 다음 지역에 대한 학습 주제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 원 간섭기에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었다.
- 조선 시대에 광해군, 김정희 등의 유배지였다.
-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시작 연대를 올려 잡을 수 있게 한 고산리 유적이 있다.

① 벨테브레이와 하멜의 표착
② 삼별초 항쟁과 항파두리성
③ 김만덕의 상업 활동과 빈민 구제
④ 정제두의 양명학 연구와 학파 형성
⑤ 광복 후 좌 · 우익의 대립과 4 · 3 사건

정답: ④

* 제주도의 역사

• 원의 간섭기 때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1623년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옮겨졌고, 노론 벽파 가문 출심의 추사 김정희는 노론 시파가 정권을 잡은 세도 정치기에 제주, 북청 등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는 고산리식 토기로 불리는 이른민무늬토기와 함께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오래된 토기로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를 약 B.C 1만년까지 소급하게 하였다.

① 네덜란드인 베테브레이와 하멜은 모두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다가 제주도로 표착되었다.

②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전을 계획하고 진도(용장성)와 제주도(항파두리성)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1270~1273).

③ 김만덕은 정조 때의 제주 관기 출신의 여류 거상(巨商)으로 제주도의 빈민구제에 힘을 썼다.

④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⑤ 1948년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이 일어났다.

21. 다음 서문이 들어 있는 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우리나라 문인들의 문장 저술이 비록 육경(六經)에 견줄 수는 없지만 문운(文運)의 성쇠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며, 여러 문인의 작품을 모아 한 질의 책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이 전하의 말씀을 받들어 삼국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부·시·문 등 약간의 글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취하여 문체에 따라 분류하고, 130권으로 정리하여 책을 엮어 올립니다.

① 동문선 ② 경국대전 ③ 동국통감
④ 악학궤범 ⑤ 국조오례의

정답: ①

* 조선 전기의 시문선집 <동문선>

동문선: 조선 시대에는 한문학이 문학의 중심을 이루었고. 양반들은 한문학을 공부하여 이를 생활화하였다. 특히, 한시를 쓰는 일은 그들 생활의 일부였다. 그리하여 많은 한시와 문집이 만들어졌는데, 서거정의 '동문선'은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삼국 시대 이래의 유명한 시문을 뽑아 엮은 책이다(1478). 우리 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볼 수 있다.

② **경국대전**: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후기까지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이 법전의 편찬은 조선 초기에 정비된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 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우리 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종 때에 동국통감이 간행되었다. 이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 이 편찬하였다(1485).

④ 성종 때에 성현은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함으로써 전통 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1493).

⑤ 성종 때에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길.가.빈.군.흉)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1487).

22.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 깊은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1점]

>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차 부임하여 전라 우수영에 진을 치고 왜군이 황해로 진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거느린 전선(戰船)은 10여 척에 지나지 않았으나, 왜군의 전선은 130여 척이었다. 당시 남해 일대에서는 남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모두 군사로 불려 나갔거나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조선군에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이 민속놀이를 하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④

* 이순신과 강강술래

해마다 음력 8월 한가윗날 밤에,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원형으로 늘어서서,'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노는 놀이이다

유래는 정유재란(1597) 때 이순신이 수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적의 군사에게 해안을 경비하는 우리 군세의 많음을 보이기 위하여, 또 왜군이 우리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라고 한다.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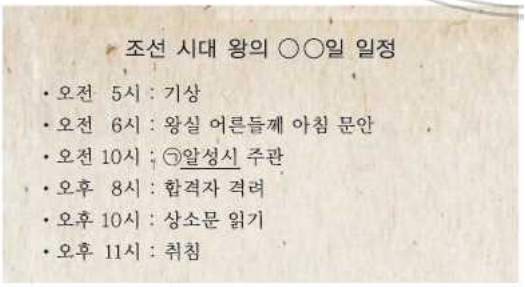
① **널뛰기**: 정초에 여성들이 즐겨 하는 대표적인 놀이. 5월 단오와 8월 추석에도 많이 한다,

② **그네타기**: 남성의 씨름과 더불어 단오절의 가장 대중적인 여성 놀이이다

③ **안동 놋다리밟기**: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해진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하여 왕후와 안동으로 길을 떠났는데, 개성을 떠나 문경 새재를 넘어 예천의 풍산을 거쳐 소야천의 나루에 이르렀을 때 마을 부녀자들이 나와 개울에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놓아 왕후가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⑤ **처용무**: <악학궤범>에 " 음력 섣달 그믐날(음력12월30일: 한해의 마지막말) 밤에 나례(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푼 의식)에서 두 번씩 처용무를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3. 다음 가상 일과표의 밑줄 그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선 시대 왕의 ○○일 일정

- 오전 5시 : 기상
- 오전 6시 : 왕실 어른들께 아침 문안
- 오전 10시 : ㉠알성시 주관
- 오후 8시 : 합격자 격려
- 오후 10시 : 상소문 읽기
- 오후 11시 : 취침

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② 왕의 문묘 참배 후 성균관에서 실시되었다.
③ 세자 책봉 등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러졌다.
④ 역과, 의과, 율과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⑤ 학덕이 높은 유생들을 추천받아 관리로 등용하였다.

정답: ②

* 조선의 과거 알성시(謁聖試)에 대하여

알성시는 국왕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는 성균관의 문묘석존례에 참석한 뒤 명륜당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국왕이 직접 나와서 실시하는 친림과(親臨科)의 하나였는데 태종 14년(1414)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험은 문·무과에만 있었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각촉시(刻燭試)였다. 전시만 있는 시험인 셈이다. 따라서 합격자도 그날로 발표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방 유생에게까지도 개방하였다. 알성시는 친림과이기 때문에 싱피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관들의 협잡이 많았다. 또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은 10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시험관은 다른 전시보다 훨씬 많은 수를 두었다. 알성시에는 시험과목이 적고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요행수를 바라는 응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과거제도가 별시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알성시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알성시에서는 57회에 398인을 뽑았다

① 식년시(式年試)는 문과뿐 아니라 모든 과거시험의 공통적인 정규시험으로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었다

③ 증광시(增廣試)는 세자 책봉, 원자 탄생 등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겹칠 때 치루는 시험으로 대체로 새로운 국왕이 설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④ 율(律).의(醫).역(譯).음양(陰陽)의 기술관을 뽑는 것은 잡과이다.

⑤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유생을 천거에 의해 간단한 대책(對策) 만을 시험보고 채용하는 제도는 중종 때 조광조 등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賢良科)이다.

24. 다음 요구 사항이 제기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부 농민의 요구 사항〉

- 세미(稅米)는 항상 7량 5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 각종 군포를 소민(小民)들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 환곡의 폐단을 없앨 것.
- 군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거나, 환곡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결렴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용호한록」-

*결렴(結斂) : 토지에 부가하여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방식

〈 보 기 〉

ㄱ. 임꺽정 등 도적의 출몰이 빈번하였다.
ㄴ. 삼정의 문란에 항거하여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ㄷ. 사화가 여러 차례 일어나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ㄹ. 정감록,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세도정치기(1800~1863)의 모습

• 제시된 자료는 임술농민봉기(1862) 때에 공주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다.

• 19세기의 세도 정치하에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탐관오리의 부정과 탐학은 끝이 없었다. 삼정의 문란으로 극도에 달한 수령의 부정은 중앙권력과도 연계되어 있어 암행어사의 파견만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농촌 사회가 피폐하여 가는 가운데 농민의 사회 의식은 오히려 더욱 강해져 갔다.

농민은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하였다. 처음에는 벽서, 괘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농민의 항거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1811)과 단성에서 시작되고 곧이어 진주로 파급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농민 항쟁이었다(임술 농민 봉기, 1862).

사상적으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 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며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들어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며 충돌하여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하여 빈번히 사림들이 큰 희생을 당하였다.

25.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 신 문 2012년 1월 ○○일

○○○ 탄생 250주년 '유네스코 연관 기념 행사'로 선정

유네스코에서는 '○○○ 탄생 250주년(2012)'을 '2012~2013 유네스코 연관 기념 행사'로 선정하였다.

○○○은(는) 성호 학파의 학통을 이어받아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각종 사회 개혁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조 사후 천주교 박해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① 자영농 육성을 위해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② 금석과안록을 지어 금석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지방 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④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⑤ 100리 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1762~1836)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으로,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①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② 서(書).화(畵)의 대가인 김정희(1786~1856)는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③ 17세기에 박세당은 <색경>을 지어 곡물 재배법 이외에 채소, 과수, 화초 재배법, 목축, 양잠기술을 소개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⑤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26. 다음 소설이 등장한 시기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하지만 그는 몹시 가난하여 환곡을 타 먹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 천 섬의 빚을 지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때마침 그 동네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끼리 회의를 열어 말하였다. "이제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곤란한 모양이니 그 양반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내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 어떨까?"

〈보기〉

ㄱ.

ㄴ.

ㄷ.

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조선 후기의 회화

• 제시된 자료는 18세기 중상적 실학자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이다

•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고,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의 등장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 **초충도(16세기)**: 신사임당 - 8폭의 유색 병풍으로, 각 폭마다 각기 다른 초화와 벌레를 그렸기에 초충도(草蟲圖)라고 부른다. 한결같이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감각 등이 특징이다

㉡ **호작도**(鵲虎圖, 까치와 호랑이): 민화

㉢ **자리짜기**: 김홍도, 풍속화

㉣ **고사관수도**: 15세기의 문인 화가인 강희안은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작인 고사관수도는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27. 밑줄 그은 ㉠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 · 전라도에는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원도에는 토호가 없으나 충청 · 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볼 때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의 시행을 좋아합니다.
>
> – 조익, 「포저집」 –

①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② 양반의 군역 면제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③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④ 전분6등과 연분9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⑤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정답: ⑤

* 조선 후기 대동법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공납)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공납의 전세화).

농민은 대체로 토지 1 결당 미곡 12 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그러나 양반 지주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 꺼려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 약 100여년이 걸렸다.

①, ③ 균역법의 시행으로 농민은 1 년에 군포 1 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 결당 미곡 2 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② 흥선대원군은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혹은 호포)로 바꾸었다. 이는 군포가 상민에게 집중되어 농민 몰락을 초래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고 조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자 한 것이다.

④ 조선 전기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 결당 최고 20 두에서 최하 4 두를 내도록 하였다.

28. (가)~(다) 의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 – 고종 퇴위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② (나) – 평민 출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하였다.
③ (다) –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여 흥선 대원군의 하야를 이끌어냈다.
④ (가), (나) –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만주로 이동하였다.
⑤ (가), (다) –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유생 출신이었다.

정답: ④

* 구한말 항일의병장들

(가) 이인영(1867~1909): 유생 출신의 한말 의병장.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켰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동창의대장이 되어 양주에서 각지 의병과 연합군을 조직하였고 정미의병(1907,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원인) 때에는 각지의 의병을 연계하여 서울진공대작전(1908)을 주도하여 13도창의총대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아버지의 별세로 낙향하며 지휘권을 군사장 허위에게 양도하였으나 조직력 약화로 작전은 실패하고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나) 신돌석(1878~1908): 대한제국 말기의 평민출신 항일 의병장으로, 을미사변과 을사조약 이후 영해·울진·원주·삼척·강릉·양양·간성 등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태백산맥의 산간지대와 동해의 해안선을 오르내리며 기습전을 펼치는 등 크게 활약했다(별명: 태백산 호랑이).

서울진공대작전 때 경상도 의병을 이끌고 나갔으나 홍범도 등 평민 출신 의병장과 함께 제외되었다(13도의 창의군 대장 전원 양반 유생 출신으로만 구성)

이후 고향 경북 영해로 돌아와 일본군을 무찌르며 활약했으나 부하 의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 최익현(1833~1906): 위정척사의 상징적 인물. 1868년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에 따르는 재정의 파탄 등을 들어 흥선대원군의 실정(失政)을 상소하여 관직을 삭탈당했고 고종의 친정과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촉구하여 대원군을 실각케하고 유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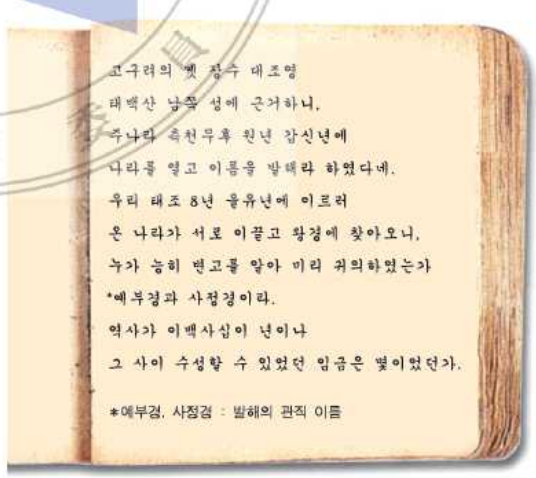
이후 일본과의 통상조약 반대(지부복궐소: 왜양일체론)와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내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수 없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의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며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모았다. 그러나 순창에서 패하여 쓰시마 섬에 유배되어 단식 순국하였다.

④ 서울진공대작전 실패 이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일제가 벌인 1909년의 대규모 군사 작전(남한대토벌작전)으로 점차 약해졌다. 이에 의병 부대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료의 3인은 만주로 이동하기 전이나 이동하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29. 다음 내용이 들어 있는 역사서가 저술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발해 건국이 실려있는 제왕운기(1287)

삼국유사(1285)를 쓴 일연과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도 우리 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충렬왕 13년에 사찬하여 왕에게 올린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歷史詩)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언시, 5언시로 중국사와 본국의 역사를 전설시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병렬적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단군 기년도 사용하였고, 단군(혈연 공동체), 기자(문화 공동체), 위만(민족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3조선설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3한, 3국, 예맥, 부여 등 모든 고대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하였으며, 발해를 본국 역사에 포괄하였다.

그러나 문화 의식의 폭이 식민지적 체질로 인해 제한되어서 체제가 帝 = 중국, 王 = 본국 이라는 사대적 명분론에 입각해 있어서 자주성이 삼국사기보다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을지문덕과 강감찬의 기록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몽고 지배에 대한 체념과 냉소적인 당시 일부 지식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한계가 드러난다.

30. 다음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의 사실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밭에 심는 것은 9곡(穀)뿐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잘 지으면 조그만 밭이라도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 서쪽 지방의 담배밭, 북쪽 지방의 삼밭, 한산 지방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다 상상등(上上等)의 논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달한다.

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②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③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활발하였다.
④ 농업 생산력 향상으로 지방에서 장시가 처음 나타났다.
⑤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는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의 경제상

• 제시된 자료는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나오는 상품작물의 잇점에 대한 것이다.

•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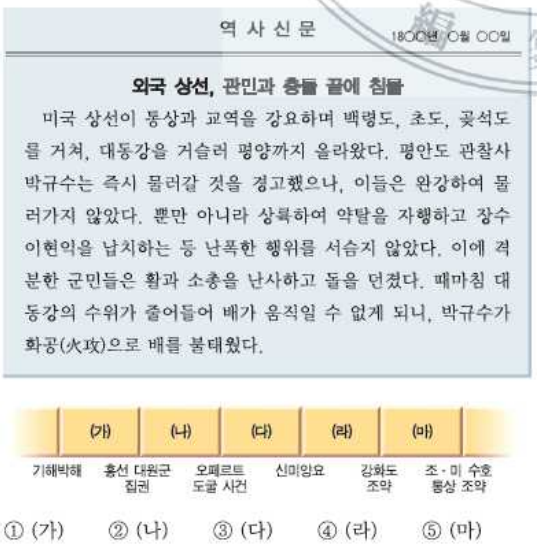
②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③ 조선 후기에는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 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④ <u>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u>는 후기에 들어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 들어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31.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가 일어나기 직전에 대포로 무장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관리를 포로로 잡고 대포와 총을 발사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주민들이 사망하였다. 박규수는 통상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열강의 무력적 침략에 맞서 제너럴 셔먼호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평양의 주민들이 관군과 합세하여 화공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켰다.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통상을 트기 위해 1871년에 로저스 제독을 파견하여 전강화도를 공격하여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었다(1871).

• **흥선대원군의 집권**(1863~1873)

•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 한편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8년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달아났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서양인을 오랑캐로 보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32. 밑줄 그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 붕당 간의 다툼을 금하고자,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 라는 내용의 친필 비석을 성균관에 세웠다.

〈 보 기 〉

ㄱ.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ㄴ.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였다.
ㄷ.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 제도를 정비하였다.
ㄹ. 신해통공을 통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탕평 정책을 추진한 영조(1724~1776)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완론 탕평). 그리고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정국이 안정되자,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고(1750),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도 정리하였고, 상고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는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1785).

㉡ 정조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사상(私商)의 발달을 촉진하였다(신해통공, 1791).

33.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이용태가 고부로 내려와서, 행패를 부린 것은 모두 동학당의 행위라 하며 동학 교도를 잡아 살육을 자행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그 무리 4천여 명을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으로 갔다.

⬇

> (가)

⬇

> 공주에 들어가 일본병들에게 격문을 전하여 대치하고자 하였더니, 일본병이 먼저 공주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형세가 접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에 세 차례 접전 후 군병을 점검하니 1만여 명 중에 남아 있는 자가 불과 5백여 명이었다.

① 남접과 북접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② 정부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③ 집강소를 중심으로 개혁안이 실시되었다.
④ 농민들이 장성 황룡촌에서 관군을 맞아 싸웠다.
⑤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하여 군민들이 관아를 습격하였다.

정답: ⑤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고부봉기>: 1894.1.10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 파견

<1차 봉기>: 1894.4, 반봉건적,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재봉기(무장, 백산 봉기) → 황토현(정읍),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관군 격퇴 →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5. 5) → 톈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5. 9)
• 전주 화약 체결(5.8): 동학 농민군은 외국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 → 일본의 궁성 침입(6.21)

<집강소 시기>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9,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혁 강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북접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월)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월)

34. (가), (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나)

① (가) – 순 한문으로 박문국에서 발행되었다.
② (가) –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관보적 성격을 가졌다.
③ (나) – 민간 신문으로는 최초로 발행되었다.
④ (나) –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⑤ (가), (나) –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아 폐간되었다.

정답: ⑤

* 한성순보와 독립신문

한성순보: 개화파는 국민을 계몽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한성순보"는 폐간되었지만, 온건 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1886).

독립신문: 아관 파천 후 서재필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1896).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한 한글판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렸으며, 영문판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였다. 독립 협회가 설립되자 이 신문은 협회 기관지의 성격을 띠면서 자주 독립 정신과 근대적 민권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서재필이 신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독립신문"은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1899).

⑤ 신문지법(1907)에 규정된 내무대신에게 부여된 행정처분권과 보증금제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던 〈황성신문〉·〈제국신문〉이 보증금 문제로 폐간시키고, 외국인(베델)이 발행하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다른 이중 잣대로 억압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친일기관지로 전락시켰다.

35.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1886년 : 길모어 등과 육영 공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 1889년 :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발행함.
- 1905년 :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감.
- 1949년 : 국빈으로 초대되어 왔다가, 서울에서 사망함.

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였다.
② 배재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였다.
③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 파견을 건의하였다.
④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을 지내며 배일 사상을 고취시켰다.
⑤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며 러시아와의 수교를 권유하였다.

정답: ③

* 지한 인사 헐버트(1863~1949)

1886년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D.A.벙커 등과 함께 내한,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 '한국평론: The Korea Review'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 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이듬해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 '회의시보: Courier de la Conferénce'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싣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년 3 ·1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국빈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으나, 병사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저서에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2권)', '대동기년(大東紀年)(5권)', '한국견문기: The Passing of Korea', '사민필지' 등이 있다.

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제중원) 설립(1885): 미국 개신교 선교사 알렌

② 최초의 서양인 설립 근대학교 배재학당 설립(1885): 미국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

③ 항일언론지 대한매일신보 창간(1904) 및 외국인 발행인: 영국 언론인 베델

④ 임오군란(1882) 후 청은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여 민씨 세력과 손잡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급진적으로 개혁을 도모했던 김옥균 등과는 대립하였다.
그러나 묄렌도르프는 점차 청의 간섭을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자주를 보존하기 위해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여 청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청국의 미움을 사서 1885년 조선을 떠나게 되었다

36. 다음 경제 상황의 배경이 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1점]

> 어떠한 벽촌이라 하더라도 장날에 청 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공주, 강경, 예산 등 시장에는 어디나 청 상인 20~30명이 와서 장사를 한다. 안성 시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 물품을 인천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상인이 1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안성 시장에 청 상인이 늘어나 점차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자가 많아졌다.

① 한성 조약 ② 톈진 조약
③ 제물포 조약 ④ 조 · 일 무역 규칙
⑤ 조 ·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정답: ⑤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閔氏)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청의 교역량 증가).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한성 상인에게 큰 타격),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① **한성조약(1885)**: 갑신정변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② **톈진조약(1885)**: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냈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당분간 한반도에서 청·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③ **제물포조약**(1882): 임오군란으로 인한 일본인의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④ **조.일 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 1876): 일본 상인에게 양곡의 무제한 유출(6칙),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7칙)이 허용되었다.

37. 다음 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황제권을 강화하여 자주 국권을 확립하자.
②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자.
③ 상하 귀천의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자.
④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여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
⑤ 의회를 설립하여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자.

정답: ③

*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공통된 주장(양반 중심의 신분체제 폐지)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 추구하던 신분 제도의 폐지는 마침내 갑오·을미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차별이 없어지고, 천민 신분과 공·사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

갑신정변(개혁정강 14개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2조).

1차 갑오개혁(개혁 법령):
2. 문벌과 양반·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
8.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①, ④ 대한 제국은 전제군주제를 표방하며 황제권을 강화하여 자주국권의 토대로 하고,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개혁을 추진하였다(구본신참, 광무개혁).

②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은 토지 제도의 개혁과 같은 민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성급히 진행된 탓에 민중의 외면을 받았다.

⑤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정부의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황제에게 올렸다.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38. 다음 엽서의 앞면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1점]

POST CARD

…… 앞면 사진 속의 건물은 천주교 신자인 김범우의 집터에 고딕 양식으로 1898년에 지어진 거야. 이곳은 건축물의 역사 - 문화적 가치도 크지만, 1970년대 이후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집회가 열린 곳으로도 아주 유명해, ……

보내는 사람 : ○○○

받는 사람 : ○○○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②

* 서구식 건물 명동성당

명동 성당: 프랑스 신부 고스트가 설계하여 1892년에 시작되어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이다. 고딕 양식(첨탑+스테인드글라스)이다.

원래 이름은 종현성당이었으나 1945년에 명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수배자나 시위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해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어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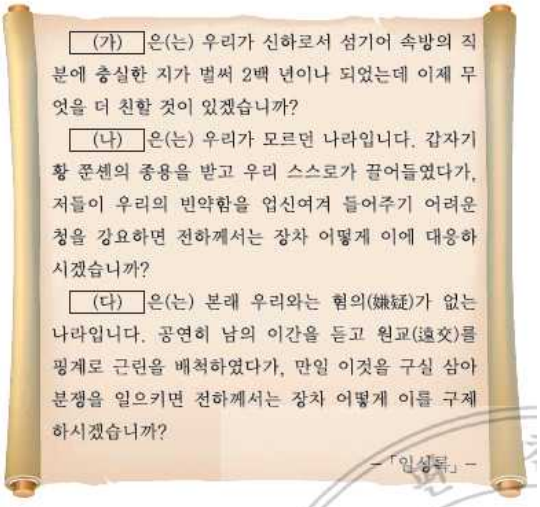
① **조선총독부**: 1926년 경복궁의 일부를 헐어내고 지어진 것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의 청사(중앙청)로 사용되어 오다가 나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도 사용되었다. 이후 청사 철거와 보존을 놓고 각계가 대립하였으나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 철거되었고 청사 윗부분 돔만이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③ **덕수궁 석조전**: 동관의 기본 설계는 영국인 하딩이, 내부 설계는 영국인 로벨이 하여 지어진(1900~1910) 근대 서양식 건물로서 기둥 윗부분은 이오니아식,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한 서양식 건축기법이 특이하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유럽 궁전건축양식을 따른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이곳에서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며, 6·25전쟁 이후 198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④ **구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인 사바틴이 착공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서 1885~1890년에 걸쳐져 완공되었다

⑤ **동양척식주식회사**(서울 을지로 소재):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1926년 나석주 의사의 의거 대상이었다.

39. (가)~(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은(는)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어 속방의 직분에 충실한 지가 벌써 2백 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 은(는)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황 푼셴의 종용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끌어들였다가, 저들이 우리의 빈약함을 업신여겨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에 대응하시겠습니까?

(다) 은(는) 본래 우리와는 혐의(嫌疑)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원교(遠交)를 핑계로 근린을 배척하였다가, 만일 이것을 구실 삼아 분쟁을 일으키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를 구제하시겠습니까?

-「인상록」-

① (가) – 임오군란 후 조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였다.
② (가) – 미국을 끌어들여 조선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지키려 하였다.
③ (나) –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였다.
④ (나) – 조선과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⑤ (다) – 삼국 간섭 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정답: ③

* 조선책략에 나타난 (가)청, (나)미, (다)러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조선책략』을 가져왔다.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편 신미양요 때 무력으로 조선과 수교하려다 실패하였던 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수교하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를 시도하였다. 미국은 일본에 알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청을 통한 수교 교섭에 나섰다. 청은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고, 국제 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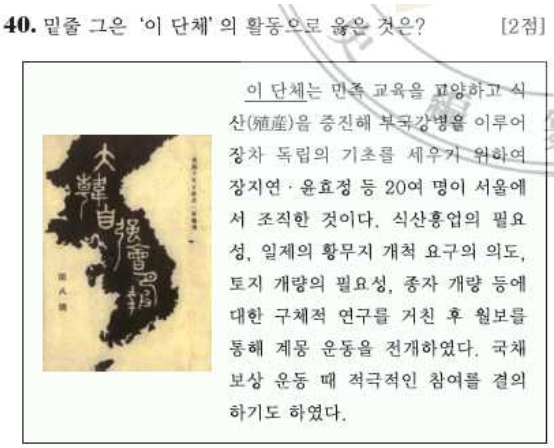
1882년 조선은 청의 알선으로 서양 열강 가운데 처음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관세 조항과 양국의 우호 협력을 강조한 규정(거중조정)도 있었지만, 영사 재판권과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조항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① 임오군란(1882)을 진압하고 이후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젠창과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적극 관여하였다. 또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강요하여 청 상인의 내륙 진출과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다.

③ 조선은 갑신정변 이후 더욱 심해진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러시아도 영흥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여 군사 훈련을 담당한다는 비밀 협약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청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갑신정변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

⑤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자 만주 진출을 기도하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1895, 삼국 간섭). 러시아와 맞붙어 싸우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였던 일본은 이에 굴복하였고, 친청 노선이던 민씨 세력은 친러로 돌아서며 을미사변의 단서가 되었다.

40. 밑줄 그은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농광 회사 설립
② 5적 암살단 조직
③ 대성 학교, 오산 학교 설립
④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추진
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전개

정답: ⑤

* 애국계몽운동 단체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1906): 헌정 연구회(입헌군주제 표방)의 후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 전개.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월보'도 발간하여 식산흥업(殖産興業)의 필요성, 국가재원 증진책, 황무지 개척, 일제 황무지개척의 의도, 임업의 필요성, 토지개량의 필요성, 종자개량 등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의 계몽운동과 건의안은 일본이 고문의 참여로 배일성이 약하고, 활동범위가 법의 허용 한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 이후 적극적인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성토하였다. 그러자 통감부는 7월 27일부로 공포된 보안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8월 21일 강제 해산시켰다. 1907년 11월 10일 조직된 대한협회(친일적 성격으로 변질)의 전신이 되었다.

① **농광회사**: 1904년 일본의 토지 침탈 기도(황무지 개간 요구)에 대응하여 개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근대적 농업회사로 같은 해 해체되었다. 보안회와 관련이 있다.

② **5적 암살단**(1906):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에게 도움을 준 친일파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다섯을 암살하기 위해 나철.오기호 등이 설립한 단체

③, ④ 신민회(1907~1911)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세워 문화 활동과 민족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41. 밑줄 그은 ㉠ 시기에 제기된 독립운동가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3·1 운동 이후 민족 운동을 이끌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성, 상하이, 연해주 등지에 임시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 임시 정부들을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성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로, 1927년에 국무위원 중심제로, 1940년에 주석 지도 체제로, 1944년에 주석·부주석 중심 체제로 개편되었다.

① 이동휘 – 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무장 투쟁이 필요하다.
② 이승만 – 구미 위원부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③ 김 구 –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여 독립군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④ 안창호 – 임시 정부의 장래를 논의할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⑤ 신채호 – 기존의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③

* 초기 임정(1919~1925) 때의 국민대표회의(1923)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이 번번히 좌절되는 가운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외교활동)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 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에 비판적인 신숙과 신채호 등은 군사 통일 준비회를 열고, 이승만을 불신임하면서 독립운동 전체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 회의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에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동조하였다.

국내외 여러 독립운동 단체 대표 140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표 회의가 상하이에서 1923년 1월에 열렸다(안창호 제기, 임시의장). 회의에서는 독립운동 과정을 평가·반성하는 한편, 임시 정부의 존폐를 둘러싸고 토론하였다. 토론에서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창조파(신채호, 신숙, 문창범)와 임시 정부의 개조를 주장하는 개조파(안창호, 여운형, 김동삼)가 대립하였다. 두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창조파는 연해주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소련 정부의 퇴거 요구로 새 정부는 해체되었다. 한편 임시 정부는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하는 등 체제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난 가운데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에 빠졌다.

① 창조파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을 주축으로 한 반임시정부 무장투쟁 노선으로서 1921년에 임정을 탈퇴한 이동휘와 같은 오선이었다.

③ 한국광복군은 김구와 관련은 있지만 1940년 충칭에서 결성되었으므로 시기와 장소적으로 맞지 않는다.

42. (가)~(라) 사실을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다) – (나)
③ (나) – (라) – (다) – (가)
④ (다) – (라) – (나) – (가)
⑤ (라) – (나) – (가) – (다)

정답: ②

* 현대사의 연대기

(가) **3대 대선 (1956)**: 제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야당(민주당: "못살겠다 갈아보자") 대통령 후보 신익희의 갑작스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조봉암 후보의 돌풍으로 힘들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었다(1956).

(나) **6월민주항쟁 (1987)**: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이한열 열사 사망 도화선).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다) **10.26 사태 (1979)**: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부·마 항쟁).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정부장 김재규에게 시해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렸다(10·26 사태).

(라) **3선 개헌 (1969)**: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와 민주 공화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과 학생, 재야 세력을 억누르고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민 투표를 거쳐 개헌안이 확정되었다(1969).

43. 다음 지도는 어느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표시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한 · 중 연합군을 결성하여 활동함.
②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함.
③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를 조직함.
④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함.
⑤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함.

정답: ②

*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생애

홍범도(1868~1943):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첩(1920)에서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일본을 대파시킨 불세출의 장군.

구한말 포수 출신으로 이미 정미의병 때에 참여하였으나 양반 유림 출신의 13도 창의군에 신돌석과 함께 배제되는 아픔이 있었다.

자유시사변을 거쳐 소련으로 이주하였다가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하고 극장 야간 수위,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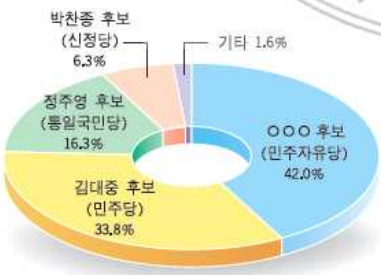
① 1930년대 초반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한중연합작전).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② 1911년 북간도 왕청현에서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항일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1919년 임시 정부 군무부 산하의 북로 군정서로 개편하고 서일을 총재로, 김좌진을 군사령관으로 삼아 본격적인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한 후 청산리대첩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④ 북간도 지역에서는 간민회와 중광단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민족의식 고취와 인재양성 및 군사 훈련에 주력하였다. 또한 서전 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의 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44. 다음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정부가 한 일로 옳은 것은? [2점]



<제14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②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③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조인하였다.
④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⑤ 중·고교생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하였다.

정답: ①

* 김영삼 정권(1993~1998)

노태우의 민정당은 여소 야대 국회로 인한 정국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두 야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1990). 이에 14대 대통령 선거(1992.12)에서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다.

한편,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② 평양 남북정상회담
1차: 2000.6.13 (김정일-김대중),
2차: 2007.10.4 (김정일-노무현)

③ 한미 FTA협정 조인 (2007, 노무현 정권)

④ 노태우(1988~1993) 정부 시기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다. 또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소련(1992)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 국가 및 중국(1992)과 수교하였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⑤ 전두환 정부(1981~1987)는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생 교복·두발 자유화 등의 국민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4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920년대 신문 만평〉

〈쟁의 발생 상황〉

연도	건수	참가 인원(명)
1921	27	2,967
1923	176	9,060
1925	11	2,646
1927	22	3,285
1929	36	2,620
1931	57	5,486
1933	66	2,492
1935	71	2,795
1937	24	2,234

출처 : 조선 총독부 경무국, 「최근 조선의 치안 상황」, 1938

① 지주의 소작료 인상과 소작권 이동 등에 저항하였다.
②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③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④ 중앙 조직인 조선 농민 총동맹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⑤ 사회 진화론에 입각하여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 소작쟁의 (1920~1930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작농은 갈수록 줄어들고 소작농은 늘어갔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바치고,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까지 부담하면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였다.

농민들은 소작료 인하와 소작지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소작 쟁의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농민 조합을 결성하였다. 소작 쟁의가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할 경우, 한 농장이나 농업 회사에 속한 농민 수가 많아서 쟁의의 규모가 크고 격렬하였다.

1923년에 있었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소작 쟁의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1924년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소유의 농장 소작 쟁의는 소작농들이 쟁의 중에 조선 노농 총동맹에 가입하였고 탄압하는 일본 경찰에 대해 무장 투쟁까지 전개하였다. 1927년 전국적인 소작 쟁의를 지도할 농민 운동 단체로서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지역 농민 단체는 1928년에 전국적으로 307개소나 만들어졌다. 소작 쟁의는 일본 경찰이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⑤ 3·1 운동 이후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독립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실력 양성 운동은 교육을 통한 인재의 육성, 민족 자본의 형성, 부정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수용 등을 독립의 선결 과제로 보았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 세력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나 물산 장려 운동 같은 실력양성 운동을 추진하였다.

46. (가)~(라)의 노래를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점]

(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나)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 어랑어랑 어허야 / 양곡배급 적어서 콩깨묵만 먹고 사누나
(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 목을 놓아 불러보았다 찾아를 보았다 / 금순아 어데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드냐 / 피눈물을 흘리면서 1·4 이후 나홀로 왔다
(라)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다) – (가) – (라)
③ (나) – (라) – (가) – (다)
④ (다) – (가) – (라) – (나)
⑤ (라) – (나) – (다) – (가)

정답: ②

* 노래를 통해 보는 현대사 연대기

(가) **새마을 운동가**: 박정희 정권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로 말미암아 농업은 희생을 감수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촌의 생활은 어려워졌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 제창된 새마을 운동은 침체된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뒤에는 도시로 확대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생활 태도의 혁신과 농어촌의 환경 개선,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 **신고산 타령**: 총동원령(1938) 이후의 일제 인적·물적 수탈 반영. 지원병(1938), 양곡배급(1940)이 힌트.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한국인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식량 배급 및 미곡 공출과 금속공출을 실시하여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

(다) **굳세어라 금순아** : 6.25 전쟁(1950~1953) 반영. 흥남 부두 철수(1950.12), 1.4 후퇴(1951) 등이 힌트.
3년간 계속된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전쟁 고아,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 감정이 높아져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라) **광주여 무등산이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반영(1980).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47. (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 문 앞에서 자기 손으로 폭탄을 던진 이 의사는 일왕의 가슴을 서늘케 하고 적의 군중들이 놀라 아우성을 칠 때, 그 자리에서 가슴속으로부터 태극기를 꺼내 들고 바람에 맞추어 뒤흔들며 소리 높여 '대한 독립 만세'를 세 번 부르고 조용히 놈들의 체포를 받았다.

(나) 그는 뜻한 바를 기어이 성공하려고 4월 27일에 식장인 홍커우 공원으로 가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점검한 후, 시라카와 대장의 사진을 얻고 일본 국기 한 장을 사서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29일 새벽이 되자 양복을 입고 어깨에 군용 물병을 메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공원으로 달음질쳐 간 것이다.

– 김구, 「도왜실기」 –

① (가) – 만주 사변 직전에 일어났다.
② (가) – 3부 통합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③ (나) – 일제의 상하이 무력 침공의 빌미가 되었다.
④ (나) –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가), (나) – 의열단 소속 단원이 일으켰다.

정답: ④

*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1932)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① 일제는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대륙 침략에 나섰는데 중국 펑톈의 류타오호 부근의 남만주 철도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를 구실로 만주를 침공하였다(만주 사변: 1931)

② 1922년부터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통합 운동이 일어나 참의부(1923), 정의부(1925), 신민부(1925)의 3부가 조직되었다.

③ 이봉창의 의거를 놓고 중국 신문들은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성공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크게 보도하면서 거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만주에 자신들의 괴뢰 국가를 세우려던 일제는 세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러한 중국의 반일적인 태도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상하이를 침략하였다(상하이 사변). 그러나 일본과의 전면전을 꺼린 중국은 불리한 조건으로 정전 협정을 맺었다.
이 상하이 사변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상하이 사변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이어져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게 되었다.

48.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김주열 사망에 분노하여 시위하는 마산 시민들
②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가족들
③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시설을 점검하는 공무원들
④ 유신 철폐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서울역에 나온 학생들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

정답: ③

* 1987년 6.29선언 당시의 모습

•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 전두환 정권(1981~1988) 당시인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올림픽 위원회에서 북한과 소련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정 불안정을 이유로) 정주영 올림픽유치원장의 노력과 정부의 총력외교를 통하여 일본 나고야를 표결로 이기고 '88올림픽' 개최 결정을 얻어냈다.

이 88서울올림픽은 전두환 정권의 업적으로 각인되어 1987년 4.13 호헌조치의 빌미로 작용하였다.

①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 선거 후 시위 진압 경찰에 의해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되자(1960. 4. 11.) 격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② 한·일 국교 정상화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하였다(1964~1973).

③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맞서 1980년 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의 시위대가 자진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5.17).

⑤ 김영삼 정권 말의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제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생긴 1997년 말의 외환위기(IMF구제금융)를 금모으기 운동 등의 국민의 자발적 헌신과 김대중 정권의 산업 구조조정,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고통분담 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었다.

4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여(閭)에는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내 땅 네 땅의 구별을 없애고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둔다.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으로 가져온 다음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뺀다.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적힌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
> (나)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① (가) – 실학자 유형원이 주장하였다.
② (가) – 당시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었다.
③ (나) – 6 · 25 전쟁이 끝난 후 공포되었다.
④ (나) – 토지의 무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⑤ (가), (나) – 경자유전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정답: ⑤

* 여전제와 농지개혁

(가) **여전제**: 정약용은 경자유전의 원리를 실현코자 지주 전호제를 철폐하여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1여(閭, 30호)로 하여 여장의 책임하에 지휘하여, 농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고,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집단 농장제의 형태를 취하였다

(나) **농지개혁법**(1949.6 제정, 1950~1957 시행):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농지 개혁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경자유전)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기 이래 높은 소작률로 고통을 받던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①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5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1973년 제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자,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도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 등에 힘입어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① IMF의 구제 금융 지원
② 3저 호황으로 인한 무역 수지 개선
③ 중동 건설 사업 진출로 인한 외화 유입
④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
⑤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한 삼백 산업의 성장

정답: ③

* 1차 석유 파동(1973~1974) 극복

박정희 정권 때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제 1차 석유파동은 중동 산유국들이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지만, 1970년대 말에 찾아온 제2차 석유 파동(1978~1980)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다.

① 김영삼 정권 말의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제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생긴 1997년 말의 외환부족 위기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②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있었던 2차 석유파동과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생긴 경제 위기를 전두환 정권은 경제 안정화 정책을 내세워 구조 조정에 적극 개입하고, 과잉 투자 조정과 부실 기업 정리, 재정·금융의 긴축 정책 실시 등을 단행하여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다. 특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④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으며, 김대중 정권은 IMF 극복을 위해 외국 자본 유치에 힘을 썼다.

⑤ 이승만 정권기인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도로, 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이 파괴되었고, 제조업도 생산 시설의 절반이 파괴될 정도였다.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삼백산업).